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박동진¹, 김송미^{2*}

¹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²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Life Adjustment: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Dong-Jin Park¹, Song-Mi Kim^{2*}

¹Welfare Cooperation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

²Institutional Review Board, Myo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 2,24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life adjustment. To this end, a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2,246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econd year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019).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 life. Second,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 life through social competence. Third,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life adjustment through self-esteem. Fourth, the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life adjustment through the successive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ults, countermeasures against acculturative stress,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were discussed to support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in this regard.

Key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Acculturation Stress, School Life Adjustment,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Song-Mi Kim(Myongji Univ.)

email: matumism0730@gmail.com

Received October 17, 2022

Revised December 7, 2022

Accepted January 6,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3

1. 서론

학교는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이면서, 다양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는 매우 유의미한 발달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생활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강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유의미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이 시기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고 낮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 가족과 분리된 환경에서 적절히 적응을 하는지를 비롯하여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탄력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1]. 특히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매우 활발해지고, 그 범위와 수준도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는 학업뿐 아니라 친구관계를 비롯하여 교사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적절한 사회성을 함양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또래들로부터 소외를 받거나 놀림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폭력의 대상이 되어 안전도 위협받고 있었다. 이는 학습부진, 중도탈락율 증가,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등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통해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2]. 게다가 학교 현장은 다문화 청소년이 적절히 교육을 받기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3].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경계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주도적으로 삶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약자라는 인식을 점차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4]. 다문화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등 성장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또래와 달리 부모 출신 국가의 문화와 한국 문화라는 이중적인 문화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발달상의 스트레스에 더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양한 부류, 즉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 모두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주로 소수자의 입장에 처해있는 비주류 문화집단

의 개인 또는 가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고, 또한 보유한 권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류문화에 동화할 것을 요구받는 등 불평등을 경험한다[5]. 이로 인해 본인 소속의 문화와는 다른 가치나 규범, 그리고 정체성 등과 타의에 의해 타협해야 하므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우려가 크다[6].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실제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12].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적절히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인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와 함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문화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높은 경우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14].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적 역량이 높아 주위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일 수 있다[13]. 이로써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15].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교우관계 등 사회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갖게 한다면, 청소년기에는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인 자아존중감도 높은 수준으로 갖게 한다면, 전반적인 사회적응수준을 높여,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사회생활인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다[15]. 이로써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역량이 매개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다중매개하는가?. 한편, 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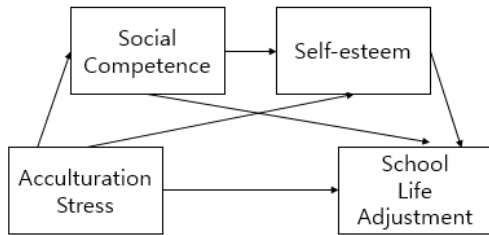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에 참여한 2,246명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조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9년부터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패널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의 정의에 근거하는 대상자들로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16].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성별로는 남성 1,144명(50.9%), 여성 1,102명(49.1%), 연령으로는 10세가 2,109명(93.9%)로 가장 많았으며, 11세 99명(4.4%), 9세 23명(1.0%), 12세 13명(0.6%), 13세 2명(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정책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 당시 사용한 문항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측정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백혜정 외[17]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이 좋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55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소래[18]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외국인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나의 외국인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나의 외국인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우리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0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은 백혜정 외[17]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0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백혜정 외[17]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98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SPSS 27.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하여 우선 변수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살펴보았으며,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19]가 개발한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의 모형6으로 분석하였으며,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연속다중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확인하여 정규분포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의 왜도와 첨도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아래였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아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규분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2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School Life Adjustment	Acculturation Stress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N	2,246	2,246	2,246	2,246
Mean	12.88	1.53	9.66	9.87
SD	2.02	3.70	1.77	1.67
Skewness	-.39	2.03	-.48	-.62
SE	.05	.05	.05	.05
Kuriosis	.44	4.53	.20	.89
SE	.10	.10	.10	.10

한편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School Life Adjustment	Acculturation Stress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School Life Adjustment	1			
Acculturation Stress	-.25***	1		
Social Competence	.43***	-.26***	1	
Self-esteem	.39***	-.27***	.57***	1

*p<.05, **p<.01, ***p<.001

3.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각 경로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네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2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어서 3단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함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4단계에서 검증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1단계와 비교하였을 때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다면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된다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2.0669$, $p<.001$).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19$, $t=-12.3315$, $p<.001$).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8.8935$, $p<.001$). 또

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71, t =, p < .001$).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역량이 자아존중감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576.0346, p < .001$).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10, t = -7.3761, p < .001$), 사회적 역량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349, t =, p < .001$).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22.7285, p < .001$).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 = -.1266, t = -6.521, p < .001$), 사회적 역량($\beta = .2874, t = 12.6422, p < .001$), 자아존중감($\beta = .1915, t = 8.3963, p < .001$)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적인 영향,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on School Life Adjustment

Variables	Model 1 (outcome variable : School Life Adjustment)		
	B(S.E)	β	t
Acculturation Stress	-.1380 (.0112)	-.2519	-12.3315***
R-squared	.0635		
F	152.0669***		
Variables	Model 2 (outcome variable : Social Competence)		
	B(S.E)	β	t
Acculturation Stress	-.1230 (.0098)	-.2571	-12.6053***

Variables	Model 3 (outcome variable : Self-esteem)		
	B(S.E)	β	t
Acculturation Stress	-.0593 (.0080)	-.1310	-7.3761***
Social Competence	.5057 (0168)	.5349	30.1201***
R-squared	.3393		
F	576.0346***		
Variables	Model 4 (outcome variable : School Life Adjustment)		
	B(S.E)	β	t
Acculturation Stress	-.0693 (.0106)	-.1266	-6.521***
Social Competence	.3289 (.0260)	.2874	12.6422***
Self-esteem	.2318 (.0276)	.1915	8.3963***
R-squared	.2296		
F	222.7285***		

* $p < .05$, ** $p < .01$, *** $p < .001$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회귀모형에서의 세 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21].

Table 4. Bootstrapping results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Path	Bootstrap estimate			
	B	S.E	Boot LLCI	Boot ULCI
AS→SC→SLA	-.0405	.0049	-.0507	-.0319
AS→SE→SLA	-.0137	.0027	-.0193	-.0087
AS→SC→SE→SLA	-.0144	.0025	-.0194	-.0098

AS: Acculturation Stress, SC: Social Competence, SE: Self-esteem, SLA: School Life Adjustment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 = -.0405, 95\% \text{ Bias-corrected CI} = -.0507 \sim -.0319$). 이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 = -.0137, 95\% \text{ Bias-corrected CI} = -.0193 \sim -.0087$).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0144$, 95% Bias-corrected CI $=-.0194\sim-.0098$). 이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역량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균 외[7], 박동진[8], 박정윤, 채지은, 조몽적[9], 안혜우, 엄명용[10], 차한술[11], 손은영, 서호찬[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중문화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 개인에게 적응의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모 및 가족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병주[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에서의 중요한 역량인 사회적 역량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도 중요한 유의미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상은 바로 또래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교내에서는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한 학급 단위 급우관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외에서도 사회복지기관, 청소년기관 등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또한 부모, 이웃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은영과 서호찬[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지만, 자아존중감 수준을 낮추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수준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아존중감 수준을 낮추고, 이에 이어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추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이 중요하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데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은 특히 학업상에서 성공적인 성취경험보다는 부정적인 실패경험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업에서의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위해서는 학습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한국어에 약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인 다

문화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습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역량이 높아 주위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이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박동진 외[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특히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사회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험제공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높이면서 자아존중감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기관들을 통해 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을 낮추고, 이는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낮추는 연속적인 부정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사회적 역량 수준을 높이며,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나,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 각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사회적 역량을 높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매우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22]. 그러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은 개인이 갖고있는 역량뿐 아니라 이들이 처해있는 사회환경적인 영향이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는 학교의 교사, 또래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다문화 가정, 다문화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고 보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방안을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인 시점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구에서의 보다 종단적인 분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거라 판단된다.

References

- [1] J. B. Kim & S. H. Park, (2018) A study on school mal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1, 77-100. DOI: <https://doi.org/10.20933/ISSW.41.4>
- [2] D. H. Seol, Y. T. Kim, H. M. Kim, H. S. Yoon, H. Lee, K. T. Yim,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3] H. S. Kim, H. K. Yu & S. I. Nam, (2014).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of the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 of Teacher Education, 30(3), 177-195.
DOI: <https://doi.org/10.14333/KJTE.2014.30.3.177>
- [4] H. J. Son,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 Cli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3(3), 27-54.
- [5]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n, P. Balls-Organista, & G. Mart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pp. 17-3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DOI: <https://doi.org/10.1037/10472-004>
- [6] LaFromboise, T., Coleman, H. L. K.,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395-412.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4.3.395>
- [7] S. G. Lee, H. S. Park, Y. H & C. W. Rhee. (2012). The Mediated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Cultural Capital on School Adapt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Positive Self-concep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35-264.
- [8] D. J. Park. (2019). An Analy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9), 175-184.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9.175>
- [9] J. Y. Park, E. C. Ji & M. Zhao. (2020). The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Ego-Resilience on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Middle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e & Peace*, 14(2), 101-121.
DOI: <https://doi.org/10.22446/mnpisk.2020.14.2.005>
- [10] H. W. Ann & M. Y. Um.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 Impa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arching for Converged Inter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6), 297-31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6.297>
- [11] H. S Cha. (2021). Longitudinal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Withdrawal, and National Identity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10), 489-523.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1.10.28.10.489>
- [12] E. Y. Son & H. C. Seo. (2022). The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13(4), 1331-134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3.4.93>
- [13] B. J. Jeon. (2012).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29-38.
- [14] S. K. Un. (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3, 37-74.
- [15] D. J. Park, S. M. Kim & K. A. Park. (2022).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Serial Multiple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 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5), 803-812.
DOI: <https://doi.org/10.14400/JDC.2022.20.5.803>
- [16] K. M. Yang., Y. S. Jang. & Y. M. Jung.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youth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2019: General Report,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7] H. J. Baek., H. J. Lim., H. C. Kim. & S. R. Ryu. (2017). 2017 Comprehensive Survey of Korean Youth(Research Report 2017-10).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18] S. R. Lee. (199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19]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20]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21]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22] Y. A. Ah. & S. S. Park.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ty Spiri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ty Spiri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39, 95-117.

박 동 진(Dong-Jin Park)

[정회원]



- 2017년 7월 ~ 2020년 2월 :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 2020년 3월 ~ 2022년 2월 : 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2022년 3월 ~ 현재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관심분야>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

김 송 미(Song-Mi Kim)

[정회원]



- 2014년 4월 ~ 2020년 3월 : 도시샤(Doshisha)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졸업 (사회복지학박사)
- 2020년 4월 ~ 2021년 3월 : 시코쿠가쿠인(Shikoku Gakuin)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21년 7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다문화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